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GOOD BEAR

가제 : 곰 지키기 대작전

저자 : Sarah Lean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0년 12월

분량 : 132 페이지 예상

장르 : 9세~12세/문학



***"마음이 찢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베스트셀러 『The Chocolate Box Girls』의 저자 캐시 카시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위팅턴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삼십 년 전 테아 위팅턴에게 일어났던 한 꿈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테아는 오늘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신의 딸 우르술라에게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삼십 년 전, 테아는 열두 살 생일 즈음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아빠 헨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테아의 부모님은 테아가 네 살이었을 때 이혼했고 아빠는 몇 년 전부터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었다. 테아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번 생일 선물로는 꼭 타자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테아의 꿈이 바로 작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테아는 엄마 몰래 아빠에게 자신의 소망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빠가 테아에게 생일 선물로 보낸 건 달랑 카드 한 장뿐이었다. 실망에 빠져 있던 테아는 결국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에 대해 털어놓았다. 엄마는 테아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덕분에 테아는 아빠와 아빠의 새 가족과 함께 노르웨이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 엄마는 테아에게 아빠가 그곳에서 테아를 위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해서 테아는 생일이 지난 지 다섯째가 되는 날,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노르웨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게 되었다. 하지만 테아는 곧 엄마를 홀로 두고 간다는 마음에 씁쓸해져 지난 날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려보았다. 테아의 아빠는 실력 있는 목수였고 일에만 몰두 하느라 가족과 함께 할 시간조차 없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낯선 나라 노르웨이에서 자신과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자식들이 된 아이들과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정작 테아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그런 무심한 아빠가 되어버렸다.

테아가 오슬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테아의 기대와는 달리 곧 새로운 아내가 될 잉게와 그녀의 아이들인 엘리사와 라스까지 함께 데리고 마중을 나와 있었다. 열여섯 살 엘리사, 테아와 비슷한 또래인 라스는 테아만큼 어색한 눈치였고 테아는 아빠를 똑 닮아 빠죽 빠죽한 자신의 갈색머리를 그 아이들이 열른 알아봐주기를 바랐다. 테아는 아빠의 새 집을 둘러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이방인 같은 존재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예상대로 무뚝뚝한 아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롯가에 앉아만 있고 테아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 했다. 테아가 이 어색한 공기를 견디게 하는 힘은 오직 곧 받게 될 생일 선물 하나뿐이었다. 테아는 곧 이어 아빠가 건넨 선물 상자를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열었다. 하지만 그 상자 속에 들어 있는 건 테아가 그토록 고대했던 타자기가 아닌 고무로 만든 부츠 한 켤레였다. 테아가 굳이 아빠에게 타자기를 선물로 받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타자기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테아는 간절히 작가가 되고 싶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와 아빠 사이에 그 타자기가 연결점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테아는 심지어 이 부츠조차 아빠가 고른 것이 아니라 잉게가 혼자 골랐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선물만 던져주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테아는 아빠가 만들어준 나무 비행기를 갖고 놀고 있는 라스를 보며 아빠를 영영 뺏겨버린 것 같은 마음에 울적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눈 내린 숲 속으로 들어간 테아는 아득한 정적 속에서도 뭔가 꿈틀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테아는 혹시 라스가 자신을 몰래 따라온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테아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눈덩이들 사이로 사람 셋을 합쳐 놓은 것 만한 거대한 갈색 곰이 보였다. 너무 놀란 테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망쳐 근처 상점 주인 브이에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며칠 후 테아의 작가적 호기심이 다시 곰을 만난 그 숲으로 테아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테아가 만난 그 갈색 곰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갇혀 지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거나 고문을 당하며 살아왔던 가여운 곰이었다. 때문에 그 곰은 사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테아가 곰을 찾아가 따뜻한 파이와 연어를 갖다 주자 곰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둘은 곧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위원회 회원인 프라그 씨가 숲 속에 나타난 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냥 파티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테아는 그 곰이 결코 사나운 존재가 아닌 순박하고 선한 곰이라는 것을 어른들에 알리려고 했지만 이방인인데다가 아직은 어린 소녀에 불과한 테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아빠마저 그 사냥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테아는 더 큰 절망에 빠지고 만다. 테아는 자신의 친구인 곰을 구할 수 있게 될까? 아빠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인간과 동물의 교감, 가족간의 사랑에 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사라 린 (Sarah Lean)은 원체스터 대학에서 문예창작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이 첫 소설을 쓰기 전까지 신문사 페이지 플래너, 정원사, 교사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작가로 데뷔했다.

제목 : ALOUD

가제 : 목소리를 높여봐

저자 : Amy Beashel

출판사: One World Publicaion

발행일: 2020년 1월

분량 : 314 페이지

장르 : 문학소설



*** 어린 소녀이든 성인 여성이든 상관 없이 모든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을 지키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곳곳이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소설**

제이콥 맨스필드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학교 동급생인 열일곱 살 이지에게 술을 먹였고 이지를 사람이 아닌 마치 자신의 인형처럼 마음대로 갖고 놀았다. 이때마다 이지를 구하러 오는 건 항상 이지의 제일 친한 친구 그레이스뿐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레이스마저 남자 친구인 넬에게 빠져 이지를 내내 신경 쓰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어느 때부터인지 그레이스마저도 이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지옥 속을 헤매고 있는 이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이콥의 손에서 벗어난 이지는 파티장 한 가운데에 주저 앉아있었다. 저 멀리서 제이콥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늘 그렇듯 깔깔대고 있었다. 그 때 영어 수업에서 알게 된 맥스가 다가와 이지를 일으켜 세웠고 이지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지의 얼굴에 물을 묻혔다. 이지는 그제서야 파티 장소를 떠나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레이스는 남자친구와 한참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엄마와 새 아빠인 다니엘은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이지는 이 시간에 어디로, 누군가를 찾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맥스가 다시 이지에게 다가왔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엄마는 이지를 보자마자 괜찮은지 물었고 이지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자 늘 그렇듯 이지의 거짓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다.

다음 날 제이콥은 수업시간에 자신의 핸드폰 앨범 속에 가득한 선정적인 사진들을 이지에게 내밀었다. 제이콥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린 선생님 또한 대충 그게 어떤 사진들인지 눈치챘지만 제이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자 청소년들이 이런 사진들을 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태도로 비아냥거렸다. 사실 그 사진들 중에는 이지의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젊은 여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고 제이콥이 뉘엿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면 그날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마는 것이었다. 제이콥은 선생님에게 다시 핸드폰을 돌려받아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지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제스처를 보내며 또 한번 이지를 모욕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들 뻔뻔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레이스는 입버릇처럼 자신이 차라리 이성애자가 아니고 레즈비언이길 바랐다. 주변에는 사춘기라는 명목 하에 변태적인 행동과 사고를 가진 남자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지를 괴롭히고 여자애들을 물건 취급하는 남자들은 학교 안 사춘기 소년들뿐만은 아니었다. 이지의 새 아빠인 다니엘 역시 그런 수많은 남자들 중 하나였다. 다니엘은 겉보기엔 조지 클루니를 뺨칠 미남에다가 아내와 의붓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다정한 남자였지만 실상은 그와 달랐다. 다니엘은 아내의 눈을 피해 의붓딸인 이지에게 계속 불쾌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게다가 이지가 패스트푸드라도 먹는 날이면 엄마와 이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외모 품평을 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이지의 엄마 스테파니는 다니엘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괜히 이지의 마음을 달래주려 애를 썼다. 이지는 한번이라도 엄마가 직접 다니엘에게 맞서기를 바랐지만 이지의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지를 보호해줄 만큼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는 제이콥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그는 이지에게 이지가 나온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으니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오늘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다. 이지는 어쩔 수 없이 제이콥의 집으로 향했다. 제이콥은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는 이지가 결코 동의한적 없는 행위를 했다. 이지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도무지 벗어날 수 가 없었고 제이콥은 뻔뻔하게 웃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런 이지의 모습을 찍어댔다. 이지는 수치심을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어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지의 엄마는 이지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이지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겨우 침실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밖에서 이지의 이름을 부르는 제이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가 마지못해 창문을 열자 그는 이지가 자신의 침실에 모르고 두고 간 핸드폰을 가져왔으며 밑에 내려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이지가 제이콥에게 다가가자 그는 이지의 폰을 움켜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담긴 사진도 다 보냈다고 말했다. 그때 그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새 아빠 다니엘이 집 밖에 서 있는 이지와 제이콥을 발견 하고 그들에게 다가 왔다. 새 아빠는 제이콥의 손에서 이지의 핸드폰을 빼앗아 이지에게 돌려주곤 그를 쫓아버렸다. 이지는 순간 핸드폰 화면에 뜬 자신의 사진들을 새 아빠가 보았을까 봐 겁이 났다. 새 아빠는 이지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며 이지의 볼에 평소보다 더 길게 입을 맞췄고 이지는 뺨속부터 역겨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이지는 새 아빠가 자신의 사진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이렇게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지는 엄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지와 엄마는 가스라이팅과 강간문화가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다루는 다소 힘겹지만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울림이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이미 배셀은 열네살 때 친구와 함께 'I Believe in Women 's Rights'라는 코미디극을 쓴 적이 있다. 그녀의 데뷔작인 『The Sky is Mine』 역시 어릴 때부터 그녀가 생각해왔던 대로 곳곳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